

월/요/광/장

이영철



우리 조상들은 형태로 사유를 했다. 소리를 낼 때의 입의 형태를 언어로 만든 세종 한글의 근간이 되는 천지인 사상은 하늘을 점, 땅을 수평선, 사람을 수직선으로 간소하고 편리하게 기호화되어 있다. 한쪽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한글의 탄생처럼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땅끝 어귀에 혼신을 다해 뚫고 있다. 장차 빛을 쬐어낼 공간을 음각으로 파고 있는 것이다. 전당 건립의 뜻을 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을 제공해 준다.

실처럼 우리 각자의 일상과 아주 닮은 일상이 다른 우주에서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광주를 우주라고 하면, 지구는 샤프 연필의 끝점보다도 작다. 광주와 대한민국이 하늘에 뭉개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저 멀리 스키타이에서 훈(훈노)과 풍골을 거쳐 에스키모와 인디

5·18 정신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언어 이르기까지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을 가장 성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또 그 하늘은 단순히 자연의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 몽골어에서는 '팅그리'라 부른다. 가장 가까운 시조인 단군의 어원이 바로 이 성스런 단어인 텡그리에서 온 말이니 그 뜻이 바로 하늘이다. 인종적으로 말타이계는 모두가 하늘을 섬겼던 자손이다. 800년 전에 이미 21세기를 살다가 장기스칸은 생전에 '영원히 푸른 하늘'로 칭송되었다. 역사적으로는 문화전당의 장소는 세속적인 권력이 응집된 곳이었다. 그 시간대

는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권에 있던 통일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 시대에는 광주읍성의 일부로 지방 통치의 거점 건물들, 광주목의 관아들이 있던 곳이다. 그 뒤에도 지역 권력이 집약되어 있던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구도형 건물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의 단일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건물군으로, 1930년에 처음 설계되었다.

이 도형 건물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인식은 1980년 5월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형성되어 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과 탄압적인

응집되어 있던 지리적 정치적 장소가 80년 5·18 이후 시민에 의해 탈권력화의 '성소'로 변했고, 항쟁 기억의 집이자 기억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장치로 탈바꿈했다.

우리는 이 엄청난 긍정의 변화를 모든 부정적인 형태의 삶을 바꿔나가는 가치로 승화시키고, 그 가치를 항상 현재형으로 취해야 한다. 문화전당은 그 것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아시아문화개발원과 함께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의 두 축으로 공식 비전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정체성의 바탕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아시아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창출하려는 야심찬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낼 것인지는 쉽지 않은 과제다. 또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통해 광주를 미래형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가 인권과 문화를 정치/행정권력과 문화산업에 종속시키는 시스템 구축과 그것의 반복 재생산으로 가치 양도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이 국책 사업은 반드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대화형 프로젝트로 가야 하며, 민과 관, 국내외의 민간 전문인력이 열정적으로 협력하는 개방적인 프로젝트로 빨리 전환시키지 않으면 밀실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칫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조직위, 여수박람회 성공 개최 의지 있다

여수박람회가 개막 9일이 되도록 관람객 수는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곳곳에서 운영 미숙을 드러내는 등 출발이 좋지 않다. 설상가상, 박람회를 다녀간 관람객들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조직위는 제때 개선조치 않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현재 관람객은 4만4828 명으로 애초 휴일 목표치로 잡았던 10만~15만 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93일 동안 목표치인 1082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1만 6000명 이상이 관람해야 하는데, 현재 주중 하루 4만여 명, 주말 5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운영상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수 인근 4곳의 환승주차장은 한산하기만 하다. 오전 11시 이후에는 환승주차장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고작 5~10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할 정도다. 영상 중심 전시에 대한 불만이 많고, '전시관 예약제'가 홍보되지 않아 장시간 줄을 서도 하루 입장 가능 전

시관은 몇 안 된다. 또 조직위 홈페이지에는 각종 불만과 환불 요청, 운영 미숙 등을 항의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이미 관람한 사람들의 평가가 비난 일색이지만 조직위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니 도대체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시킬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조직위는 초기이고 방향·휴가철이 아직 멀어 관망이 저조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하다. 최근 관람객 대부분이 청년·노인층 단체 관광객과 소풍은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사정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박람회는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다. 조직위는 지금이라도 관람객 유치 전략을 재점검하고,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는 등 흥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 세계 제일의 해양도시 부상'이라는 개최 취지를 실효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수돗물에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라니

광주시 수돗물 오염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 동구 용연정수장 계통 수돗물 공급지역 422개 아파트 저수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79곳에서 알루미늄이 0.21~2.54mg/L로 측정돼 기준치(0.2mg/L)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수질 부적합 경보(2급) 발령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알루미늄 기준치 초과는 지난 12일 용연정수장에서 누군가 약품 공급밸브를 잘못 건드려 응집제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투입된 데 따른 것이다. 2급 경보 상황은 맛과 색도,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발령한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건강상

해로움은 확인되지 않으나 심리적인 불편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서는 고농도 알루미늄을 장기 음용하면 치매 유발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수돗물 오염사태 이후 불신이 크게 확산되면서 생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비용도 문제지만 심리적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이 검출된 279곳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6월 가까이 수돗물을 마셨으니 불안과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시는 알루미늄이 침전된 아파트 저수조의 물빼기와 청소를 하도록 하고, 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빛어울수' 공급이 고작이다.

물빼기 비용과 물 낭비만 하더라도 얼마인가.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사고 초기 நட장대처에다 사후 조치마저 이 모양이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시민들이 그렇게 민만한다.

無等鼓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 쌀로 지은 밥, 메주로 장을 담가 건더기로 만든 된장,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 쌀과 누룩으로 빚어 숙성시킨 막걸리..

패스트푸드나 등장하기 전 우리의 먹을거리는 모두 슬로푸드(slow food)였다. 인공적인 가공이 아닌 자연 숙성이나 발효과정을 거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된 재료에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깃들다보니 먹는 이들도

'삶의 여유'를 느꼈다. '음식이 곧 약(藥食同源)'이나 다름없었다. 1960~1970년대 미국의 히피와 뉴에이지 신봉자들 사이에선 매크로바이오틱(macrobio-tic)이라는 식생활법이 유행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나는 제철 음식을, 껍질이나 뿌리·씨까지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먹는 것이다. 육식을 삼가고 유기농 곡류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특징이었다.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려는 지산지소(地産地消)캠페인으로 농업의 생명력을 키워왔다. 세계화·개방화에 대항할

방법은 지역화뿐이라는 점에 착안한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이다.

여기에는 모두 동양의 자연사상과 음양원리가 반영돼 있다.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라는 신토불이(身土不二)가 그것으로, 제 땅에서 난 것이라면 체질이 맞는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 밥상에서 신토불이 식품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구온난화까지 하는 사람의 정성이 깃들다보니 먹는 이들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0년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의 푸드 마일리지(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식품수송량에 수송거리를 곱한 것)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해보니 우리나라가 1위로 나타났다. 1인당

식용수입량은 468kg,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프랑스의 10배 수준인 7085t·km에 달했다. 지역 경제와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식탁에서부터 녹색생활 실천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 그것이 곧 참살이(wellbeing)다.

/정추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법조칼럼



김영일

검사인 필자는 수많은 거짓말을 만나고 산다. 사소한 폭력사건에서부터 대규모 공판이 주고받는 뇌물사건 등 형사사건은 물론 금품 거래에서 생겨난 문제가 주를 이루는 민사소송에서도 관련자들은 거짓말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넘기려한다. 그 많은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강간이나 간통과 같이 개인 간에 은밀히 있었던 사건 경우에는 더욱더 진실을 밝히기란 어려운 법이다.

거짓말 속에 숨어있는 진실 찾기

필자가 검사로 임관되고 나서 얼마 안 돼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송치된 간통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적이 있다.

무속인이 모 공사 지부장과 간통했다는 내용으로 무속인의 남편이 고소한 사건이었다. 경찰에서 무속인은 간통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부장은 간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다.

무속인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보니 무속인은 지부장에게 돈을 해야 한다고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 즉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추가 수사를 해보니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선고형량을 줄이기 위해 남편에게 자신과 지부장을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무속인이 경찰에서 지부장에 대해 사실과 달리 몇 가지 나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필자는 이에 따라 무속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남편을 시켜 허위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무속인과 지부장을 불러 놓고 무속인에게 허위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계속했는데, 무속인이 갑자기 지부장을 쳐다보면서 "우리 사랑했어요"라고 크게 외쳤다.

관찰 놀란 필자는 그 순간 지부장의 얼굴을 쳐다봤다. 지부장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무속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필자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관을 무속인의 집에 파견해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그곳에서 수사관은 지부장이 입던 양복과 신발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무속인의 말처럼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이다. 결국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사기 사건도 사랑이 깨지자 지

부장이 고소해 시작된 재판이었다.

무속인이 수사과정에서 지부장에 대해 좋지 않은 거짓말을 한 것도 재판중인 사기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한 행동이었다.

진실을 알고 난 뒤 거짓말을 가려내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다. 그러나 수사를 하다보면 거짓말을 가려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정만 넘치고 모든 것이 서물렀던 초임 시절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 됐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

오죽하면 거짓말탐지기까지 생겨났겠는가. 검사는 물론 수사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실제적 진실을 파고들지 못할 경우 관련자의 진술에 의지해야하는 이들은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사실 마지막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이 진실을 조금이라도 밝혀내는 것이 필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이 지금도 조사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고민에 고민을 할 때면 "우리 사랑했어요"라고 외쳤던 그 무속인이 기억난다.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기고



고성석

지구촌의 대추제인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지난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3일 동안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1000만 명의 관람객이 대한민국의 남해안 중심도시 여수! 세계 4대 미항 여수로 향하는 데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개장 첫날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35만여 명이 박람회장 찾았다. 조직위 관람객 수요예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갈수록 관람객

여수 교통 원활, 엑스포 관람객 환영합니다

이 늘고 있다. 화창하고 싱그러운 5월! 여수의 아름다운 밤바다와 박람회 핵심공간인 빅오(Big-O)를 주무대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 k-pop공연 등 다양한 세계적인 문화공연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는다면 교통소통이 원활한 시내권 환승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싶다. 여수시민들의 승용차 안타기와 불법주차장 안하기 운동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여수 시내권에는 현재 2만3,000면의 임시 환승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이들 주차장

에서는 박람회장까지 5~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무료셔틀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웬전 엑스포 터미널을 중심으로 용기공원(시청)과 이순신광장에서 박람회장까지 순환 운행되고, 박람회장에서 관광지인 향일암, 만성리, 흥국사 등으로도 순환 운행되고 있다.

특히, 웬전 엑스포터미널은 주차면수가 6,500면인, 시내권에서 가장 큰 대형 주차장으로서 관람객을 위한 공연장과 특산물 판매, 샵터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현재 시내권 도로에는 박람회 개장 전 우려와는 달리 교통 소통이 원활하다. 이는 적극적인 여수시민들의 승용차 안타기 운동 참

여와 시내버스 무료 운행, 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시행, ITS 운영과 스마트 폰을 통한 교통정보 안내 등 품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여수시와 시민들이 온 힘을 다한 결과다.

이제 여수시는 관람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국민여러분!

세계인의 축제인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과 여수 밤바다, 천혜의 해안절경, 전국 최고 맛을 자랑하는 싱싱한 해산물과 음식, 여수 시민의 따뜻한 인심 등을 느끼고 즐기실 수 있는 세계 4대 미항, 여수로 지금 출발하십시오.

여수 웬전 엑스포터미널로 오시면 이 모든 걸 원스톱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평생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수에 꼭 오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 가지기 바랍니다. <여수시 건설교통국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제대로 해 줘야

현재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에게 쏘는 노력만큼, 그렇게 살려준 동물이 짓밟는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에게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이고, 씨앗이나 작물의 모종을 파종하는 시기이지만 농민들은 지금 망연자실하다.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콩이든 고추든, 혹은 마늘이든 뭐든 간에 야생동물들이 죄다 뜯어먹어서 아무것도 재배할 수가 없다고 한다.

지난번 정해걸 국회의원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자며 그 법률안을 국회에 내렸다. 그때 밝혀진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는 충격적이다. 최근 4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17억 원으로 연평균 1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동물별 피해발생 규모는 멧돼지가 259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2.1%를 차지했고 다음은 까치, 고라니, 야생오리 순으로 나타났다. 작물별 피해액은 벼가 12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채소 99억, 배 70억, 사과 64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원은 전체 피해액의 5분지 1 수준인 122억 원에 불과했다. 이런 피해 보상이 마지못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

는 일이다. 농민들이 동물들을 맘대로 잡을 수 있는 데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이런 동물들을 잡아 죽이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 놓고선 피해보상마저 5분지1이려면 농민들더러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 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차원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야생동물의 멸종 위기를 지나치게 우려해 보호지역에서의 피해가 있을 시에만 보상을 하는 것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그러므로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임중선·광주시 동구 산수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유진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